

#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거 입상

## 강원도 농업기술원 주관 ... '떡메 하나로 일어서다' · '항아리 뚜껑을 열면 장아찌가' 최우수상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11 강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고성군 농업인이 대거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성군에 따르면 농업 정보화 사례 확산과 사이버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고성군 농업인들의 작품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응모결과를 거쳐 242점이 선정됐고, 지난 12월 2일 심사를 거친 최종 20점의 작품 중 4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지난 9일 강원도 농업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UCC, 사진, 체험수기, 명함 등 5개분야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토성면 인흥2

리 진해련 설악떡의 김성진씨(53세)가 체험수기 부문에서 '떡메 하나로 일어서다'로 최우수상과 UCC부문에서 '메밀꽃 피 무렵 그길을 걷다'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토성면 도원3리 장아찌여왕의 도명숙씨(47세)가 명함 부문에서 '항아리 뚜껑을 열면 장아찌가'로 최우수상과 사진부문에서 '외국인도 다알아요'로 장려상을 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농촌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때 보람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격려

고성새암실버케어 정춘남씨 등 3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또 고성연화마을 장정열씨 등 9명이 서울지역본부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는 지난 7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초청해 다과회 및 문화공연 행사를 갖고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최일배 지사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짧은 기간 내에 정착될 수 있게 된 데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컸다"며 "제도 운영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장기요양기관과 공단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 여성농업인 사랑의 모자뜨기 교육

### 100개의 털모자 만들어 ... '솔이는 뜨개쟁이' 송도연씨 강사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환)는 생명사랑 실천운동을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교육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 까지 농업인 단체 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세계의 빈곤아동을 돕는 NGO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여

성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솔이는 뜨개쟁이'의 대표 송도연 강사를 초청해 개인별 능력에 따른 지도하에 실시됐으며, 교육생들은 총 100개의 털모자를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이번 교육기간에 만들어진 털모자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 전달돼 저체온증 등을 겪고 있는 잠비

아, 방글라데시의 아기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모자뜨기 교육을 통해 작은 실천이 사랑나눔 메신저가 되어 죽어가는 신생아들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훈훈한 분위기를 주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 까지 농업인 단체 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모자뜨기 교육이 열렸다.

###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 삼성증권(01636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반등이다. 강한 반등과 함께 전체 종목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급에서도 기술적인 흐름과 국외 시장의 동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인들의 현물 매수의 힘은 과거보다 상당히 탄력을 잃었다. 다만 기관들의 종목관리가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물 매수와 기관들의 꾸준한 종목 관리로 종목 장세와 종목 순환매가 나오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1945 안착을 시도할 것이고 1945에 안착을 한다면 이제까지 소외

되었던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2000선 이상의 상승을 바로 시도할 것이다. 특히 증권주와 같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을 이용한 단기 스윙 매매를 이어가면서 지수와 종목의 조정을 이용해 천천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삼성증권(016360)을 보고자 한다. 삼성증권은 작년부터 이슈가 되는 랩-어카운트 사업에서 경쟁사에 비교하여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자산 운용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적절한 수익 다변화로 인해 주식 시장 자체의 변동성에 강한 수익구조로 되어 있고 자통법 통과 이후 계열사와

의 연계영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여전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은 그 어떤 우량주보다 현재 관심을 두기 좋은 종목으로 보인다. 게다가 증권주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수 고점을 향한 과정에서 꼭 관심을 뒤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